

싸이 신곡 '젠틀맨'에 전라도 사투리 "알랑가 몰라"

부르기 쉽고 운율적 장점 중독성 갖게해 전라도 방언 지구촌 곳곳 전파 의미 깊어



"알랑가 몰라" 원뜻은 "알려는 모르겠다"로 모음이 축약(ㄴ→ㅇ)된 경우다. 전라도 방언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음 축약 현상으로, 어감 측면에서 지역 사투리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케이스"라고 말했다.

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음축약은 언어의 격식보다는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발화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음악과 접목되었을 때, 가사를 전달하기 쉽도록 동어반복을 축발하는 역할을 한다.

"알랑가 몰라""알랑가 몰라""알랑가 몰라" 세계인의 노래, 싸이의 신곡 '젠틀맨(gentleman)'이 전라도 말로 불렸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口語)이 전파를 타고 세계인의 귀를 즐겁게 한 것이다.

이라는 형식적 차이를 이번에는 전라도 방언으로 시도함으로써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손 교수의 말에 따르면 호남 방언의 우수성이 지구촌 곳곳에까지 알

'40년 지리산 지킴이' 함태식옹 별세

지난 40여년간 지리산을 지켜온 '지리산 호랑이' 함태식옹이 14일 새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그는 2009년 4월 대피소 관리인 자리를 그만두고, 피아골에서 해설사로 활동했다. 당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인생의 절반을 산에서 지냈는데, 막상 떠나려고 생각하니 밭갈이 무겁게 느껴진다"며 "산을 떠나더라도 정화활동 등 지리산 지킴이로서 활동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28년 구례 만석꾼의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순천중학교와 연희전문을 나온 뒤 인천 기계제작소에서 근무했다. 10년 동안 일을 하다 그만둔 그는 1972년 초대 노고단 대피소 관리인으로 임명됐다.

아홉 살 때부터 오르내렸던 지리산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87년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생기면서 피아골 대피소 관리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산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을 내 '지리산 호랑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조난당한 사람도 슬하게 구해냈다. 그가 구조해낸 사람만도 100여명, 지리산에 심은 나무도 1만 그루에 달한다.

유족으로는 장녀 에리(수녀), 장남 인주(강사), 차남 천주(물리치료사) 씨가 있다. 빈소는 인천 주안 3동 성당이며, 발인은 16일 오전 9시다. 장지는 인천 부평 송화원. 문의 010-7599-425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 아이튠즈 차트서 돌풍... '연타석 홈런' 칠까

뮤비 공개 하루만에 조회 1000만건 돌파 美 35위·英 15위... 누리꾼 반응은 엇갈려



가수 싸이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해프닝'(HAPPENING)에서 열창하고 있다. /연필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6)의 신곡 '젠틀맨'이 지난 12일 공개와 함께 세계 각국 아이튠즈에서 순위가 상승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서 단숨에 100위권에 진입했다. 14일 오후 현재 싱가포르·홍콩·핀란드 1위, 아르헨티나 3위, 영국 15위 등 아시아·남미·유럽 각국에서 선전 중이다.

'젠틀맨'(Gentleman) 뮤직비디오는 공개 하루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건을 돌파했다. 누리꾼들은 '역시 싸이', '강남 스타일만 못하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젠틀맨'의 뮤직비디오도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조회수 1380만건을 기록 중이다. '종아요'(추천·Like)는 39만3000여 건, 댓글은 16만2000여 건에 달한다.

싸이와 작곡가 유건형이 함께 쓴 '젠틀맨'은 '신사'(젠틀맨)와는 거리가 먼 남자가 '나는 신사'라고 외치며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묘사한 노래. 이 곡은 지난 12일 0시 전 세계 119개국에 공개됐다.

해외 언론 역시 '젠틀맨'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미국 음악전문지 빌보드를 비롯해 AFP, 로이터, 타임, 포브스, BBC 등 수십여 개의 해외 매체가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싸이의 '연타석 홈런' 가능성에 주목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전작 '강남스타일'의 흥행 공식을 그대로 따랐다. '젠틀맨' 싸이가 놀이터, 카페, 수영장, 포장마차, 뽕 클럽, 마포대교 등 여러 장소에서 찍은 장난을 치며 '나는 신사'라고 외치는 모습이 코믹하게 묘사됐다.

해의 언론 역시 '젠틀맨'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미국 음악전문지 빌보드를 비롯해 AFP, 로이터, 타임, 포브스, BBC 등 수십여 개의 해외 매체가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싸이의 '연타석 홈런' 가능성에 주목했다.

습이 코믹하게 묘사됐다. 젠틀맨은 발표되자마자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젠틀맨' 음원은 세계 각국 아이튠즈의 싱글 종합 차트인 '톱 송즈' 차트에

을 공개한 콘서트에 5만 관객이 몰렸고 15만명 이상이 유튜브 생중계를 봤다는 점을 감안하면 싸이의 신곡 흥보 효과를 충실히 했"이라고 덧붙였다.

다"는 찬사와 "강남스타일"만 못한 것 같다" "외국인에게 잘 들리게 하려는 부담감이 강했던 것 같다"는 혹평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들리기가 쉬운' 가사에 집중하느라 '강남스타일'에 비해 풍자의 매력은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HAPPENING) 공연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완타'나는 곡을 선택했다"며 "곡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더라도 산적인 노림수만 우려와 실망 계산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곡이고 선택"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정무특보에 이탁우씨 선임

경제 이근경·농림 이덕수



이탁우

이근경

전남도는 1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정무 정책특별보좌관에 이탁우(56) 전남도생활체육협회장을 선임하는 등 경제, 농림, 정부 분야 특별보좌관 3명을 위촉한다.

14일 전남도는 "경제 정책특별보좌관에 이근경(63) 알라딘투자 회장, 농림 특별보좌관에 이덕수(61) 전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 정부 특별보좌관에 이탁우 회장을 각각 선임하고 15일 위촉장 수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제7대 전남도 정부부지사인 이근경 경제 특별보좌는 서울대와 미국 윌리엄스대학원을 나온 뒤 행정고시(1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고 재정경제부 차관보, 기술산업보증기금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덕수

이탁우 농림 특별보좌는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농협 전남본부장, 농협 여신부장 등을 지냈다.

또 이탁우 정무 특별보좌는 순천제일대와 전남대 대학원을 나온 뒤 제7·8대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국정원 1차장 한기범·기조실장 이헌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가정보원 차관급 간부들과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장, 기조실장실장은 국정원 출신인 이헌수(60·경남) 엘스앤스톤 대표이사 각기 임명됐다.

국정원 1차장에는 국정원 출신인 한기범(58·경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차장에는 서천호(52·경남) 전 경찰대학장, 3차장에는 김규석(64·경북) 전 육군본부 지휘통신 참모부

장에는 핵공학 박사인 이은철(66·서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기용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약재 목목 독활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결혼문화원

금호아파트 54, 39, 87, 160, 419

산정입구 계림초등학교

호남직업전문학교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06,19,83,180,184

4,19정류소 55,98,151,518

홍플러스 광주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구)련던약국사거리

민속촌

메가박스 개업기념 슈니팡 3개 구매시 영화관(2중) 버블팡음료 1잔 무료증정

무진주

4호점 순천 연향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8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10호점 광주 수완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려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능이 억제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인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뻐뻐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원장 김동진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19호(광고)